

## ▶ 공지사항 ◀

- 2월 15일 설 법회 및 제사  
오후 2:00 설 맞이 불타사 웃놀이, 시상.  
어린이회, 선우회, 바라밀회, 불문회
- 2월 15일(일) - 3월 1일(일) 정초기도 입재 및 회향.  
동참비 \$ 50
- 2월 22일(일) 현전스님(북경대 철학박사) 법문

## ▶ 기도 동 참(2월 8일 - 14일) ◀

- 법등: 원인식 김승한 김영순 남궁연 정영교 박병란 윤여원  
이충일 이호섭 이승연 이재현
- 인등만등: Won Sang Won Branden 박애니 박윤희 임윤현  
임배성 임윤희 윤수인 윤수진 윤수민
- 설제사 선덕화 김영순 남궁연 김옥경 박병란 이관제  
이충일
- 정초기도:
- 기도: 김승한 수정심(초하루) 이호석
- 대중공양: 선덕화(떡), 홍주연 김수월심(과일공양)  
이현심화(떡) 불국화 이미나(꽃공양)

##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저녁 8:00-9:30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0:50, 오후 2:00-3:00
- 영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 불교강좌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 어린이 법회 :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 일요일 오후 2시
- 어린이 한글학교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참선수행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2월 15일 제 27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 부처님 말씀

마음은 미묘하게 함부로 날뛰므로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바로 보기 어렵다.  
지혜로운 이는 그런 마음을 잘 지켜보나니  
분명히 지켜보는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깃든다.

부처님 당시 코살라국(Kosala Kingdom)에 사업을 하는 이  
가 있었다. 그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를 발원하면서 스님께  
자문을 구한 끝에 전 재산을 삼등분하여 하나는 사업에 쓰고,  
하나는 아내와 자녀의 생계를 위해 남겨 두고, 나머지 하나는  
부처님과 승단에 시주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스님의 조언에  
따라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나아가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다.

비구가 되었는데, 한 스승은 담마(dharma, 법)를 배우라 하  
고 다른 스승은 계율을 배우라 하며 까다로운 것을 보고 비  
구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스님이 되면 마음이 좀 편  
해질 줄 알았고, 또 승가의 삶이 속세와는 다르게 단순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바쁘고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났다.

“한 스님은 담마를 배우라 하고 한 스님은 계율을 배우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어요.”

마음은 하나인데,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고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마음을 닦기 위해 해야 할 공부가 많아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다.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담마가 더 중요한지, 계율이 더 중요한지, 심정이 복잡해진 것이다. 이렇듯 혼란한 비구의 마음을 보시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그렇다면 비구여, 네가 한 가지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보호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잘 지켜보도록 하라,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이다.”

이것도 신경쓰고, 저것도 신경쓰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럽다면 다른 모든 것을 하려 애쓰지 말고 오직 마음만을 잘 지켜보라는 것이다.

마음을 관하는데 일체 모든 수행법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올라오는 온갖 복잡한 마음을 다만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바로 그 수행에 모든 공덕이 담겨 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미묘하게 함부로 날뛰면서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다가, 또 다른 좋은 대상이 보이면 곧장 마음을 바꿔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히곤 한다.

끊임없이 마음은 함부로 날뛰다. 경전이 좋다고 하면 경전을 보다가, 계율이 중요하다고 하면 계율로 갔다가, 참선이 좋다면 참선을, 또 염불이 좋다면 염불로 마음이 옮겨가며 끊임없이 마음을 바꾼다.

지혜로운 이는 그런 마음을 잘 지켜본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날뛰는 마음에 끄달려 이리저리 휘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마음에 중심을 잡고 중심의 자리에 서서 원숭이처럼 날뛰는 마음을 그저 고요히 지켜본다. 분명히 지켜보는 마음에 행복과 평안이 깃드는 줄 바로 안다.

마음이 바깥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끄달리고, 좋아하는 대상만 보면 무조건적으로 달라붙어 집착하는 이 속성을 잘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본질은 그 모든 번잡함과 집착과 움직임들을 한발자국 물러나 고요히 바라보는 자다. 분명히 바라보는 중심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넘쳐날지라도 한 발자국 물러나 고요히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리는 평안과 고요, 그리고 지혜가 깃들어 있다.

불교는 온갖 수행법, 교리, 사상, 경전들로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오해서 우리 같은 범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종교로 느껴지곤 한다. 해야 할 수행도 너무 많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만 하라. 바로 그것은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